

조선 후기 보령현 읍치시설의 위치추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the location of government facilities in Boryeong-hye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김 명 래

Kim, Myung-Rae

(소영문화연구소, 공학박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nd reveal the spatial structure of Boryeonghyeon by examining the geographical status of its Eupchi (Local administrative center: 邑治) through an analysis of the location, tracing locations of government offices including Dongheon(東軒) and Kaeksa(客舍) in the walled town, and checking the lot numbers of Sajikdan(社稷壇), Yeodan(厲壇), and Cheongyeonyeok(靑淵驛) outside it. Buildings of Boryeonghyeon in the walled town in the Joseon Dynasty were almost lost and now, part of the city wall and Haesanru(海山樓) just remains as relic.

The walled town consisted of several buildings of government offices as well as Dongheon and Kaeksa which are government organs. Altar and shrine(壇廟) facilities including Shrine of Confucius(文廟), Altar of Land and Grain, and Preceptor's Shrine were placed outside the walled town and Cheongyeonyeok were operated as the facilities for transmission of royal orders. Therefore, the government office facilities in the walled town, altar and shrine facilities outside the fortress, and the location of the post station were required to trace and check each of them.

For the checking method, the lot numbers could be checked by checking the original cadastral maps and the then land categories and owners, analyzing the records and circumstances of the relevant township annals(邑誌), and examining analyses on the locations by using a numerical map of one to 5 thousands.

The study estimated the locations of government facilities including Dongheon and Kaesa placed in the walled town and was grasped to be the east and west gates with the south gate which remains now in the fortress. And the lot numbers of Sajikdan, Yeodan, Cheongyeonyeok.

주제어 : 보령현, 읍치, 객사, 사직단, 여단

Keywords : Boryeonghyeon (保寧縣), Dongheon (東軒), Kaeksa (客舍), Sajikdan (社稷壇), Yeodan (厲壇)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조선시대 보령현은 읍치시설로서 보령읍성¹⁾ 안에는 동헌과 객사를 비롯한 여러 관아 건물이 있었으나 모두 훼손되었고, 읍성 밖에도 사직단·여단·문묘 등 단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조선이 망하자 사직단과 여단은 멸실되었다. 그 후로 관심 밖에 놓이면서 분명한 소재

지가 기록되지 않은 채 잊혔고, 그 위치를 조사해 보려는 연구도 없었다. 따라서 보령사직단과 보령여단이 소재했던 위치는 불분명한 상태가 되었다.

조선시대의 고지도는 그 작성방식이 회화식 지도로써 대상물의 실제 위치를 식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보령현의 경우에는 읍치 시설에 관련된 사료와 선행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이에 따라 본고의 목적은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앞서 일차적으로, 보령읍성 내에 주요 관아로서 동헌영역과 객사영역의 위치를 추정하고, 읍성밖에 사직단과 여단의 위치를 추정함으로써, 보령현의 주요 읍치시설의

* Corresponding author: eco5157@naver.com

1) 충남 보령시 주포면 보령리에 있는 읍성.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46호(1984. 5. 17)이다.

배치상태를 파악하고 그 공간구성이 확인하는 데 있다.

이 결과는 향후 보령현 읍치시설물의 위치 확인이나 복원 작업의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고의 연구범위는 조선후기 보령읍성·동헌·객사·사직단·여단·청연역의 소재 위치 추정하여 주요 읍치시설의 배치상태를 살펴보는 것이다.

보령읍성 내의 관아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학술조사나 발굴조사가 시행된 적이 없는 편이다. 현재 보령읍성의 관아지는 보령중학교와 주포초등학교가 건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형이 크게 변한 상태이다. 그러나 보령현의 경우는 아니지만, 본고와 유사한 여러 연구²⁾에서 제시된 방법론을 참고할 수가 있었다.

본고에서 참고사료는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호서읍지』, 『보령현읍지』³⁾ 등 문헌자료와 「여지도」, 「해동지도」, 「지승」, 『1872년지방지도』, 「팔도지도」⁴⁾ 등 고지도였고, 「지적원도」, 『보령군지』⁵⁾, 『보령시지』⁶⁾를 최근 자료로 이용하였다. 보령읍성 내에 동헌과 객사영역은 『1872년지방지도』, 「보령현」의 관아지도와 「지적원도」⁷⁾ 및 「항공사진」 등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동헌영

역과 객사영역의 위치를 도출시켜 「지적원도」상에 그 소재지번이 표정 되도록 검토하였다. 따라서 추정된 소재 위치는 지적도의 번지단위가 되겠다.

2. 보령현의 연혁과 읍치 경관

2-1. 문헌 고찰과 연혁

조선시대 보령현은 현재 보령시의 7개 동(洞)과 북부에 위치한 5개 면(面)지역이었다. 여지도서에 수록된 보령현의 연혁은 아래와 같다.

[건치연혁] 본래 백제의 신촌현(新村縣 沙村)이다. 신라 때에 新邑이라 고쳐 결성군의 속현으로 삼았다. 고려 초기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현종 9년(1018)에 운주에 소속시켰다. 예종 1년(1106)에 감무를 두었다. 조선 태종 13년(1413)에 규정에 따라 현감으로 하였다.

[신증] 효종 3년(1652) 임진년에 수영을 합쳐 소속시키고 부사로 겸해 다스리도록 했다. 효종 6년(1655)에 충청감사 이후산의 보고로 전처럼 현으로 강등시켰다. 관원은 현감·훈도를 두었다(훈도는 지금 없어졌다.⁸⁾)

현재의 보령읍성(보령시 주포면 보령리)은 세종 20년(1430)에 축성하여 보령현의 치소가 되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궁실]조는 보령현감 정대(鄭帶)의 『동헌기(東軒記)』를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보령이 경인년부터 바다 도적의 해를 입어 우리 태조 경진년에 봉당(鳳堂)에 성을 쌓고는 이를 방어하는 곳으로 삼았다. 그러나 성지(城池)가 얇고 좁은 데다가 험준하고 조격(鞏固)함과 우물을 보유하고는 편리한 점이 없더니, 세종 경술년 가을에 순찰사 최윤덕이 감사 박안신, 원용 이흥발과 더불어 다시 성 동쪽 1리 지점인 지내동 당산 남쪽을 살펴보고는, 서산군사(郡事) 박눌생과 현수(縣守) 박호함으로 하여금 공역을 헤아려 기한을 명하였던 바, 수개월이 못 되어 낙성하였다.

위와 같이 보령읍성의 낙성 사실은 확실하나, 1430년 이전의 보령현 치소에 대한 견해는 아래와 같이 다양하다. 현 지역의 『보령군지』와 『보령시지』는 주포면 보령리 560, 561, 562번지 일대의 구성제는 백제시대부터 조선 정종 2년(1400)까지 보령현의 치소였다(『보령시지』中: 295), 고남산성[鳳堂城]은 봉당리 산 62번지에 있는 것으로 보령읍성이 축조되기 이전의 읍성으로 사용되었고(『보령군지』: 735), “와편 등이 (...) 발견되어 1400년대에 일시 읍성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되고 있다”(『보령군지』: 736-737)고 서술되어 있다. 진당산성

2) 이기봉 외 1인, 「조선시대 경상도 읍치 입지의 다양성과 전형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13(3), 321-340, 2007; 이기봉, 「낙안읍성의 입지와 구조 그리고 경관-읍치에 구현된 조선적 권위 상징의 전형을 찾아서-」, 『한국지역지리학회지』14(1), 68-83, 2008; 권선정, 「조선후기 고지도를 통해 본 전통도시 읍치의 공간구성」, 『문화역사지리』32(2), 20-49, 2020; 예명해, 「조선시대 지방도시의 공간구성원리에 관한 연구(1)」, 『국토계획』33(6), 33-47, 1998; 김현규, 「조선시대의 지방도시 읍치의 성립과 계획원리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16(2), 119-134, 2007; 여상진, 2011「조선후기 천안군 읍치시설 고찰」, 『건설환경연구소 논문집』16(1), 132-142, 2011; 성대철, 「영광 법성진 관아건축의 배치 및 위치추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19(3), 9-16, 2017; 도도로키 히로시「地籍原圖를 활용한 신라 무진주(무주) 경관 복원」, 『한국고지도연구』12권 1호, 4-23, 2020; 김희정, 「海美邑城 객사의 위치 및 건축구성 연구」, 『건축역사연구』21(3), 93-108, 2012

3) 1895년에 편찬된『湖西邑誌』에 편철된 「保寧縣邑誌」

4) 輿地圖(국립중앙박물관 韓古朝 61-3, 1720년경), 해동지도(규장각 古大4709-41, 1724-1776), 지승(규장각 奎15423-v.16, 편년 미상), 팔도지도(초본, 신경준, 고려대박물관, 1770경)

5) 『保寧郡誌』는 1991년에 保寧郡에서 발간하였다. 「역사」는 제2편에서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다뤘는데, 근대사·현대사의 집필위원은 충남대 崔權默교수이다. 제9편 문화재와 사적지의 집필위원은 충북대 車勇杰교수이다. 책은 46페이지고 총 11편에 1063면이다.

6) 2012년에 상·중·하 3권으로 출판되었고, 歷史·文化遺蹟 편은 1991년에 발간된 『保寧郡誌』를 저본으로 편집된 것이다.

7) 1914년도에 작성된 보령군 지역의 「지적원도」는 각 지적도면별로 ‘건제목」표에 地番별로 당시 소유자를 기재하였고, 지적도면에는 각 필지마다 지번, 地目, 소유자를 표시하였다.(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

8) 『여지도서』 保寧縣. [건치연혁], [신증]

은 보령읍성에서 동쪽으로 1.2km 지점에 위치한 진당산(해발 351m, 보령현의 진산) 정상에 위치하며 산성의 둘레는 약 890m로 석축이었으나 대부분 붕괴되었다(『보령군지』: 146-147).

또한 이기봉은 “보령현의 읍치는 진당산성에 있다가 아래쪽의 고읍으로 내려온다. 1400년 봉당성을 축조하여 옮겼다가 1430년에 풍수의 논리에 따라 명당형국이 잘 나타나는 곳에 읍성을 축조하여 옮긴다”라고 하였는데, 조선 초기와 그 이전에 보령현의 치소가 진당산성과 봉당성이었다는 주장인데, 산성읍치설에 입각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⁹⁾

그러나 최근에는 전국에서 진행된 개별 유적 발굴조사를 토대로, 산성읍치설을 반박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다. 고려 유성현이 산성이 아니라 평지성으로 파악되거나, 김해와 진주의 읍치가 현재의 시가지에 있었음을 규명한 연구 및 고려 정해현(貞海縣)이 분석 결과 읍치시설이 평지에 있었음을 논증한 사례를 들어, “옛 고읍의 중심지나 그 인근에서 확인되는 산성은 유사시 방어나 입보를 위한 읍치 배후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산성읍치설을 비판하였다.¹⁰⁾

따라서 1430년 이전에 진당산성이나 봉당성이 보령현의 읍성이었다는 산성읍치설은 문제가 되는 것이며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2-2. 고지도 고찰과 풍수

현재의 보령읍성이 조영되던 당시에는 읍치의 공간 구성에서도 한양도성의 조영 원리가 적용되는 시기였다. 한양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신사로 에워싸인 풍수적 명당이며 그 혈에 경복궁을 지었다. 이는 하늘에서 주산인 북악산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했고 그 권위를 경복궁의 근정전에 내린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경복궁은 하늘로부터 최고의 권위를 받은 산과 같은 존재이며, 근정전에서 통치하고 있는 왕은 하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절대자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왕으로부터 임명받은 고읍의 수령은 왕의 대리자로서, 읍치의 통치 공간을 그 권위가 극대화되도록 표현하였고, 혹시 부족하다면 비보(裨補)라는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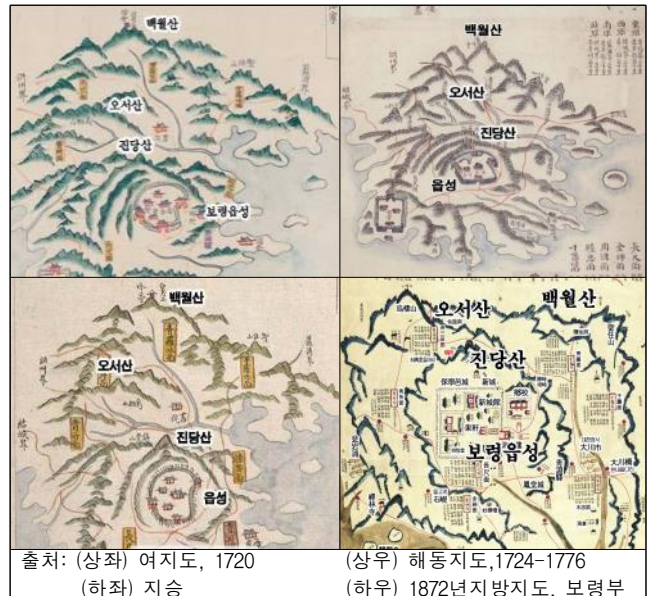


그림 1. 보령현의 풍수적 지도

법도 강구될 정도였다.¹¹⁾

조선 후기 보령현을 표현한 <그림 1>의 지도들을 살펴보면 풍수적 논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직감이 들 정도로 산세에 치중되었다. 조선 후기에 보령현을 나타낸 「여지도」·「해동지도」·「지승」·「1872년지방지도」는 모두 보령 고읍을 풍수적 명당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지도들은 읍성을 중심으로 진산과 좌청룡·우백호 그리고 주작이 고읍을 에워싸서 보호하고 있다는 풍수론¹²⁾이 강하게 드러난 것이다.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진당산은 현무이고 배재산(224m)은 청룡이며 서쪽으로 학현과 고만으로 이어지는 우측 산맥의 태봉산(240)은 백호가 되겠고 뒤편산(57)은 주작으로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³⁾

보령현의 산세는 백월산에서부터 시작되는데,¹⁴⁾ 백월산(575m)은 보령현의 조종산이고, 오서산(789m)¹⁵⁾은

11) 이기봉, 2012, 175~180쪽. 읍치에 나타난 공통성은 한양을 닮아가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하늘=산-최고 권위 건축물이라는 3단계 권위 표현과 풍수적 권위를 합리화한 것이다. 고려시대와 1420년대 전반까지는 배산임수나 풍수적 입지가 지방에 거의 없었다.

12) 권선정, 2020, 20~49쪽. 조선 후기에 읍치는 보통 풍수적 명당 국면으로서 四神砂라고 하는 주변 산세로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데, 사신사는 풍수 국면을 둘러싸고 있는 산세뿐만 아니라 연지·수목 등 주변의 자연환경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전후좌우에 배치되어 있는 현무·주작·청룡·백호 등을 지칭하는 풍수적 표현이다.

13) 이기봉, 2012, 175~180쪽. 보령읍성은 ... 1430년에 풍수의 논리에 따라 明堂 형국이 잘 나타나는 곳에 읍성을 축조하여 옮긴다.

14) 금북정맥은 한남금북정맥의 안성 칠장산(492m)에서 남하하여 안흥진까지 이어진다. 주요산은 七賢山(516m)·靑龍山(400m)·聖居山(579m)·車嶺廣德山(699m)·車踰嶺·國師峰(489m)·白月山(560m)·鳥棲山(791m)·寶蓋山(274m)·八峰山(326m)·白華山(284m)·知靈山(218m) 등으로 장맥의 길이는 약 295km에 이른다.

9) 이기봉, 2012, 175~180쪽.

10) 정요근, 2019: 5-39. 고려 후기 이후 고읍 읍치가 산성이나 평산성에서 평지성으로 내려오는 전국적 현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관계가 멀다. ...나아가 통일신라 때에도 고읍 관아지가 산성 내부가 아니라 평지나 평산지의 중심 거주지에 있었던 사례를 제시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조산이며 진당산(351m)이 진산이 된다 <그림 2>. 그러나 읍성의 건축 중심축은 진당산에서 서쪽으로 뻗어나간 맥세 끝자락인 뒷메산(113m)으로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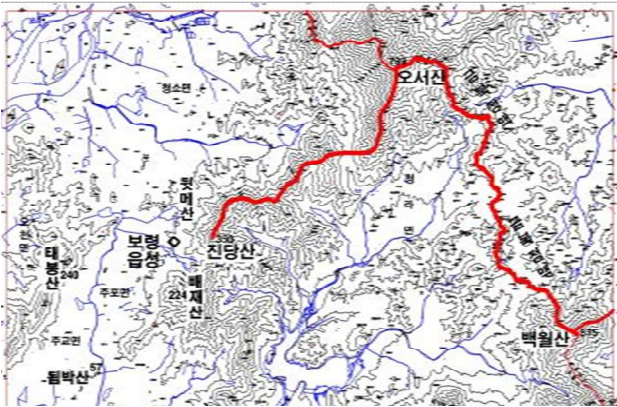


그림 2. 보령현의 산세 흐름도(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도, 366111 & 366112 가공)

2-3. 보령현 읍치의 개관

조선시대 읍치(邑治)는 각 지방의 통치 단위로서 한 고을의 행정 중심지이면서 유교적 예제를 백성들에게 실천하고 교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작동되도록 구성되었다. 고을을 통치하는 수령은 왕으로부터 임명받은 왕의 대리인이었다. 따라서 읍성에서 수령의 정청인 동헌은 최고 권력자의 권부였고 그에 상응하는 권위 표현의 구성 방법으로 풍수적인 권위 경관이 부합된다는 논리¹⁵⁾가 적용되었다. 즉, 하늘에서 부여받은 왕권이 산줄기로 연결되고 진산은 최고의 권부를 진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보령읍성의 입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권위적인 경관 측면에서 읍성의 전면 조망은 너무 짧은 거리에서 막히고, 둘째는 진당산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성의 후산을 뒷메산으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읍성의 건축적 중심축을 남문인 해산루¹⁷⁾에서 뒷메산으로 이어보면, 해산루에서 장터거리로 이어지는 시선은 불과 450m 거리에 있

는 당산(56m)에서 차단되는데 이렇게 전면 조망이 근거리에서 단절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로 볼 수 있다.



그림 3. 보령읍성의 중심축과 진산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당산(350m)은 보령현의 진산인데 읍성의 전면에서는 우측에 우뚝 솟아 보인다. 읍성의 중심축 방향은 뒷메산(113m)으로 이어지고, 그 동쪽 산마루가 곧 진당산이다(그림 2, 3). 이러한 환경에서 보령읍성은 자연스럽게 건축 중심축이 남서 방향으로 형성되면서 현재의 평산지에 입지되었고, 그 중심축상의 권위적 진입위계를 도시하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4. 보령읍성 중심축선의 진입위계

보령읍성(보령성곽)은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46호(1984. 5. 17)이며 지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1430년(세종12)에 순찰사 최윤덕, 감사 박안신, 병사 이흥발이 현재의 터를 잡고 보령성 축조를 시작하였다고 전해진다. ... 성의 둘레는 630m, 높이 3.5m 규모이며 『정대동헌기(鄭帶東軒記)』에는 보령성에 적대 8개소, 성문 3개소, 응성 2개소, 여장 412타, 성 안 우물 3개소, 성 밖 해자(壕字) 600m가 설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 성벽의 둘레는 당시 축성에 참여한 천안, 단양, 제천의 군현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면적은 77,558m²이다.

보령읍성의 성곽에 대한 사료의 자료는 <표 1>과 같다.¹⁸⁾ 보령읍성의 성문은 남문·동문·서문이 고지도에 표시되어 있다.¹⁹⁾ 정대의 『동헌기』에서도 보령읍성

15) 『신증동국여지승람』[山川]. 白月山은 청양 월산에서 뻗어 오는데 이 산이 내포 땅의 가장 으뜸이 되는 산이다. 한 가지는 오서산이 되고, 한 가지는 성주산이 된다. 烏栖山은 백월산에서 뻗어와 한 가지는 서쪽으로 달려 수영 및 학현과 고만의 주맥이 되고 한 가지는 관아 동쪽 진당산이 된다.

16) 이기봉 외1, 2007, 321~340쪽. 읍치의 최고권위 건물인 동헌은 왕이나 지방관의 정치적 권위가 초월적 존재로부터 자연스럽게 부여받은 상징적 경관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중심이다. 이러한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방문자들이 지방관을 바라보는 시점이다. 방문자들이 지방관을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권위를 느끼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정치적 권위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17) 보령읍성의 정문.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40호

18) 尺 단위를 營造尺으로 볼 때 읍성의 둘레는 653m가 되는데, 현재 성곽의 둘레(890m)와 차이가 난다. 『여지도서』에서 장·척·보로 나타낸 수치 상호간에는 단위 환산 기준이 애매하다.

에 성문이 3개소가 있다고 기록되었다. 『1872년지방지도』 「보령현」에는 해산루(남문)²⁰⁾만 표시되었는데 현존하는 성문이다.



그림 5. 해산루

동문지는 현재 문지(門址)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서문지는 보령중학교의 운동장이 조성되어 망실되었다.

3. 보령읍성의 객사 및 동헌 영역

3-1. 보령읍성의 고찰

〈그림 6〉은 보령군 주포면 신성리의 지적원도²¹⁾로 1914년에 작성된 것이며, 보령읍성과 주위의 국유지(흰색 필지)와 토지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표 1〉에 표시된 것처럼 보령읍성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는 현재 충남교육감과 보령시청 소유로 되어 있지만 지적원도 작성 당시에는 모두 국유지였다. 이 지적원도에서 보령읍성의 성곽지(城郭址)는 별도의 지번이 부여되지 않고 ‘성(城)’이라고 지목만 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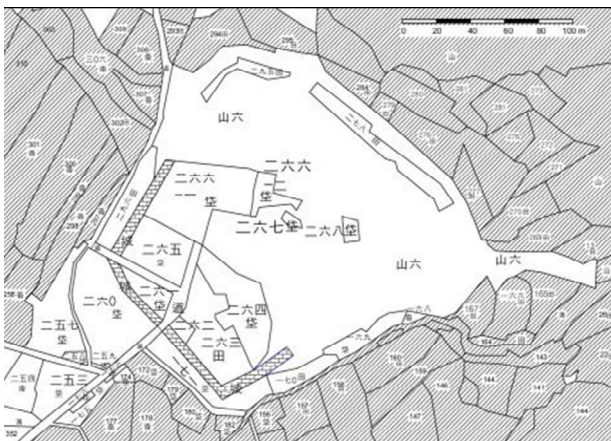


그림 6. 보령읍성의 주변의 국유지(지적원도 가필)

이것은 당시에 지적표시 방식으로써 성곽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되는데, 남쪽의 성벽은 온전했고 서쪽과 동쪽의 성벽은 일부만 남아 있으며, 북쪽 성벽지는 성(城)이 아닌 전(田)으로 지목이 표시가 된 것

19) 「여지도」, 「해동지도」, 「지승」,

20) 保寧官衙門이라는 명칭으로 지방유형문화재 제40호로 지정.

21) 保寧郡 周浦面 新城里 原圖 13-5호와 13-6호.(국가기록원)

로 보아 이미 성체가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령읍성의 규모²²⁾는 발표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직접 계산해 보기로 하였다. 이 계산은 현재 지적도(임야)등본과 지적(임야)대장의 면적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보령읍성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의 필지는 성곽의 외곽선을 기준으로 안과 밖에 걸쳐있는 필지가 있다. 그러한 필지의 성외 면적은 상용 Auto Cad 프로그램으로 산출하고, 지적등본상의 면적에서 그 성외면적을 감하여 성내 면적을 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표 1〉은 보령읍성의 실면적을 계산한 것이다.

이 방법으로 계산된 보령읍성의 면적은 약 54,200㎡ 이고, 산출된 성곽의 둘레는 890m이었다.

표 1. 보령읍성의 면적 및 소유자

지 번		현 지적 면적 m ²	성외 면적	소유자
지적원도	현재			
山6 林	山6-7林	37,488	△4,580	충남 교육감
267 垵	267學	132		
268 垵	268林	271		
266-1 垵, 266-2 垵, 268 外	266學	17,045	△4,620	
262, 263, 264 垵	170-4學	9,429	△1,460	보령시
261-1 垵, 260-2 垵	261-1林	499		
소계		64,864	△10,660	
보령읍성 면적 (m ²)			54,204	

현재 보령읍성의 성체는 몇 차례에 걸쳐 개축된 것이다. 1차는 1992년에 남벽 115m, 2차는 2001년에 동벽 130m, 3차는 2002~2003년에 동벽 69m, 4차는 2004~2005년에 동벽과 북벽 40m 구간을 보수한 것이다.²³⁾ 성체의 서쪽 구간은 주포중학교 부지로 헐렸고, 동쪽 구간 일부는 주포초등학교의 증축으로 철거된 상태이다.

보령읍성에는 오로지 관아로만 구성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주민이 거주했던 타 읍성들보다 성내 면적이 좁고,²⁴⁾ 지적원도에서도 민가의 주택지와 같이 작은 대지들이 집합된 곳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22) ①보령시/문화재자료 [보령성곽]: 충남문화재자료 제146호 (1984.5.17.), 성의 둘레 630m, 높이 3.5m, 면적 77,558㎡. ②『보령시지』, 297쪽: 전체 둘레 880m.

23) 『보령시지』, 297쪽. 성돌은 한 변의 길이가 2m 가까이 되는 매우 큰 석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복원구간에서는 새롭게 구해온 장방형으로 다듬은 비교적 작은 성돌을 사용하고 있어, 본래의 성벽과 복원된 성벽의 성돌 축성상태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24) 낙안읍성: 135,597㎡(98세대 228명), 해미읍성: 178,256㎡, 충청수영 125,326㎡, 남포읍성: 86,528㎡.

표 2. 보령읍성의 성곽

사 료	성체	단위			적요
		장	척	보	
여지도 ²⁵⁾	성둘레	530	2,109	1,057	우물 3 연못 1
	높이	3	12	6	
보령읍사례 ²⁶⁾	성 둘레		2,109		우물 1 연못 1
	높이		12		
신증동국여지 승람	성둘레		2,109		우물 3 석성
	높이		12		

3-2. 동헌영역과 객사영역의 추정

보령현의 관제는 문관 종6품 현감이 수령으로서 통치하였고, 관속은 좌수 1인, 별관 1인, 감관 1인, 군관 10인, 아전 10인, 지인 7인, 사령 8인, 관노 9명, 비 8명이었다.²⁷⁾ 이밖에도 많은 인원이 종사하고 있는 읍성에는 현감의 정청인 동헌과 국왕을 상징하는 객사를 비롯한 각종 관아건물이 필요하였다.

보령현의 관아에 관한 기록은 미흡한 편이다. 『1872년지방지도』 『보령현』에 표시된 관아는 『호서읍지』의 보령현읍지조에 기록된 관아 수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누락됐을 가능성이 크다. 또 『여지도서』의 경우도 “객사 10칸, 동헌 10칸”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누락된 관아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3>에는 『여지도서』 『보령현읍지』 『1872년지방지도』 『보령현』에 기록된 관아와 그 칸수를 정리하였다.

표 3. 보령현의 관아

공해 명	보령현읍지 (칸)	여지도서 (칸)	1872년지방지도
객사(客舍)	10	10	신성관(新城館)
동헌(東軒)	4	10	동헌
내아(內衙)	15		내아
삼문(三門)	3		내삼문
외삼문(外三門)	3		폐문루(廢門樓)
공수(供須, 官廳庫)	6		
군기고(軍器庫)	4		군기고
화약고(火藥庫)	1		화약고
짐물고(什物庫)	2		
공방고(工房庫)	3		영선고
향소청(鄉所廳)	8		향청(鄉廳)
군관청(軍官廳)	8		장청(將廳)
무학당(武學堂)	7		
아전청(衙前廳)	10		작청(作廳)

25) 周圍以丈計之則五百三十丈以尺計之則千一百九尺以步計之則一二千五十七步高以丈計之則三丈以尺計之則十二尺以步計之則六步城內有二井一池而一井周圍十尺深三丈一井周圍七尺深二尺池周圍六十尺深二尺

26) [城池] 石築周二千一百九尺高十二尺內有一井一池

27) 『여지도서』보령현 官職조

현청 (縣舍)	8		
사령청(使令廳)	4		
형옥(刑獄)	3		형리청(刑吏廳)
성문(城門)	3		해산루
호적고(戶籍庫)	1	1	
영고(營庫)	5		
대동고(大同庫)	5	4	
병선고(兵船庫)	2		*船所
사창(社倉)		13	*성 의
해창(海倉)		12	*성 의 木忠面

읍치에서 동헌과 객사는 대표적인 관아로서 부속된 공해를 거느리며 그 영역의 중심이 된다. 이처럼 관례와 기능상 동헌의 영역에 속하는 관아를 관아지 1에 배치하고, 객사의 영역에 속하는 관아를 관아지 2에 배치한다면 나름대로 위치 추정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1872년지방지도』 『보령현』 지도는 보령읍성에 설치되었던 관아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도 자체가 회화식 표현 방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각 관아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동헌과 객사 등은 일제의 부군폐합 때인 1914년에 보령군청이 대천(大川)으로 이전되면서 비어 있다가 낡아서 철거된 것으로 추정된다.²⁸⁾ 또한 이후에 건립된 학교의 신, 증축으로 인해 원래의 지표는 거의 훼손된 상태가 되었다.

읍성의 관아배치는 일반적으로 삼문형식의 진입위계, 절제된 균제미와 엄격한 좌우대칭, 엄격한 질서와 합리성, 단정하고 김소한 조형, 그리고 최후에 최고 존엄이 나타나도록 동헌과 객사의 권위를 건축적으로 표현되도록 하였다. 이는 관아의 배치구성에서 유교적 합리성과 질서관²⁹⁾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보령읍성의 경우에는 삼문형식의 진입위계는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절제된 균제미나 엄격한 좌우대칭 형식의 배치형태는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보령읍성의 관아 배치상태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대표적 관아 건축물인 동헌과 객사를 중심으로 그 영역을 추적해보면 그 영역단위의 지번을 도출할 수 있다.

28) 『保寧郡誌』, 776쪽

29) 김동욱, 2013, 186-188쪽. 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건물 배치에서 공간의 질서와 位階를 볼 수 있으며, 불교건축과 달리 장엄하거나 화려함이 없는 공간구성과 조형은 실천을 중시하고 節制와 儉素함을 추구하는 유교정신의 外的表現이었다.



그림 7. 보령현 관아도(1872년지방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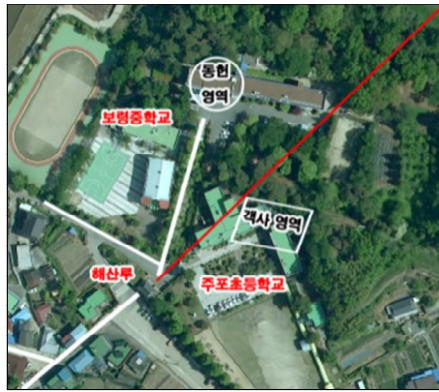


그림 8. 보령읍성의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2020-36611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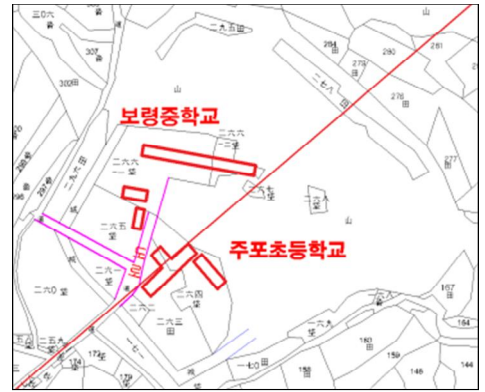


그림 9. 현재 보령읍성의 건물배치 현황도

우선 참고하고 표정할 지도, 항공사진 및 지적도를 준비하였다. <그림 7>은 『1872년지방지도』의 보령읍성 관아도이고, <그림 8>은 현재 보령읍성의 항공사진이며, <그림 9>는 지적원도에 보령읍성의 중심축선과 도로를 표시하고 현재의 보령중학교와 주포초등학교의 건물을 도시한 것이다.

보령읍성의 지적원도 <그림 6>과 『1872년지방지도』 <그림 7>에서 남문으로부터 진입도로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좌측에 동헌영역과 우측에 객사영역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 회화식 지도임을 고려하여 실제의 좌향과 위치를 분석하여 중심축선을 상정한다. 보령읍성을 <그림 9>와 같이 장터거리로부터 남문을 통하여 뒷메산으로 연결되는 직선은 보령읍성을 양분하며 중심을 가르는 중심축(中心軸)이 된다. 이처럼 중심축을 기준으로 <그림 6>에서 도시된 성내 도로를 <그림 8>과 <그림 9>에 표시해 보면 서로 그 위치와 방향이 일치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항공사진과 지적도에 표시된 중심축선의 좌측 도로 끝에는 보령중학교 교사 위치하고 있으며, 중심축의 우측에는 주포초등학교 교사가 드러나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 전하는 기록에는 “1914년 보령군청이 대천(大川)으로 옮겨가고 현재 보령중학교가 서 있는 자리가 옛날 보령현 동헌이 있던 자리다. (...) 주포국민학교가 서 있는 자리가 옛날 보령현의 객사 터이다.”³⁰⁾라고 하였다.

그 기록에 의하면 보령중학교 교사(校舍)가 있는 곳은 동헌이 소재했던 위치가 되었고, 객사가 소재했던 위치는 주포초등학교 교사가 서 있는 곳이 될 것이다.

이처럼 중심축을 기준으로 『1872년지방지도』의 보령읍성 관아도를 분석하면, 동헌은 좌측 도로 끝부분이며, 중심축 우측에 객사가 위치했던 것으로 도출된다.

동헌은 도로 정점에 위치한 대지로서 위계상으로 문제가 없다. 또 객사영역은 중심축의 우측의 상단에 위치한 대지로서 위계와 면적이 합당하였다. 이 중심축은 대략 동북향인데, 남문을 통과한 도로는 북향으로 방향을 틀어 동헌으로 진입하는데, 동헌의 외삼문(폐문루)을 거쳐 내삼문에 이르는 삼문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림 10. 보령읍성의 동헌영역과 객사영역 추정도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그림 10>과 같은 도면을 작성하였다. 이 추정도에서 보령읍성의 중심축 좌측 상단에 위치한 필지로서 대차는 266-1번지이며, 중심축 우측 상단에 대지는 264번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동헌영역은 현재 보령중학교 교사가 소재한 266-1번지(垵)로 추정되고, 객사영역은 현재 주포초등학교가 서 있는 264번지(垵)로 추정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읍치에서 관아의 배치간 구성은 동헌영역에는 내아, 사령청, 책방 등이 배치되고, 객사영역에는 군사적 직제와 관련이 있는 군기청, 군관청, 군기고 등이 배치되는 사례도 있다.³¹⁾ 이와 같은 관아의 배치

30) 『保寧郡誌』, 776쪽

관행을 『1872년지방지도』 「보령부」에 표시된 주요 관아 건축물의 개별적 위치와 상대적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 보면, 〈그림 10〉에 나타난 것처럼 읍성 안에 도로를 기준으로 좌측의 대지는 동헌영역에 속하는 ‘관아지 1’과, 우측 객사영역 부근은 ‘관아지 2’로 드러나면서 형성된다.

『1872년지방지도』 「보령현」 관아도(그림 7)에서 각 관아의 방향과 인접 위치를 분석하면 주요 관아의 개략적인 위치 추정이 가능해진다. 〈그림 10〉에서 ‘관아지 1’은 지적원도의 261, 265번지 등 2필지이며 261번지에는 보령현의 육방업무를 수행하는 작청의 배치 가능성이 높다. 전술한 261-1번지는 동헌의 외삼문 안쪽의 위치하고 있는 동헌영역으로 동헌과 내아가 일곽을 형성하며 그 앞쪽 인근에 사령청이 배치될 것이다. ‘관아지 2’에는 264번지에 객사 일곽이 자리 잡고 있으며, 262, 263번지에는 향청, 장청, 군기고, 화약고 등이 배치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10〉에서 중심축은 객사지(客舍址)와 동헌지 중단을 통과한다.³²⁾ 이는 객사와 동헌의 권위를 대등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보령읍성에서는 동헌을 객사보다 더 뒤쪽으로 배치하여 진입위계에 의한 권위를 더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보령현 객사의 당호는 신성관(新城館)이며 1911년까지는 보전이 됐던 건물이다. 『각도객사수조(各道客舍數調)』의 기록³³⁾은 “본사(本舍)가 72평이고 대지가 375평이며 현재는 공가(空家)”라고 하였다. 이때까지는 학교로 전용되지도 않았던 것이다. 신성관의 규모는 남포현 객사가 32평이고 결성현 객사가 21평이었음에 비추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홍산현 객사 비홍관은 37평인데도 웅장하게 보이는데, 그에 비해 신성관은 2배나 되는 건평이다. 『호서읍지』 「보령현읍지」에 기록된 신성관은 중앙의 대청이 3칸, 동헌 4칸, 서헌 3칸으로 도합 10칸이다. 신성관은 전형적인 일반형 객사구조로써 전면 10칸으로서 건평 72평이라면, 신성관은 측면이 2칸 이상인 웅대한 건축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보령읍성에서는 객사 건물의 위용이 규모면에서 동헌보다 건축적으로 월등했다고 볼 수 있다.³⁴⁾

31) 김기덕, 2001, 7~21쪽

32) 권선정, 2020: 20-49. 읍치의 배치에서 중심축의 좌우에 동헌과 객사가 배치된 사례가 80% 이상이다.

33) 『各道客舍數調』: 조선총독부에서 1911.4.17.에 작성된 각도의 객사현황 조사 기록이다.(국가기록원 소장)

34) 권선정, 2010, 50~72쪽. 읍치를 구성하는 핵심요소 중 동헌은 배후의 주산과 함께 읍치공간 구성의 중심으로, 또 객사는 지방 궁

그러나 보령현의 동헌은 읍성의 중심축과 틀어질 북 좌남향의 좌향을 택했는지 특이한 경우로 보인다.

보령현에서는 삼문 진입위계 형식이 동헌과 객사에 모두 적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보령읍성의 정문은 해산루가 되었고, 동헌은 문루(외삼문)를 거쳐 내삼문으로 통하고, 객사는 별도의 외삼문을 통과한 후에 내삼문으로 진입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이상과 같이 보령현 읍치의 주요 관아 영역을 살펴보고 그 소재 위치를 현재의 주소로 추정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지적원도³⁵⁾에 지목이 대지인 필지는 작성 당시에 건축물이 존치되고 있었다고 전제되는 필지이기 때문에 보령읍성 내에 지목이 대지인 7필지(261, 265, 266-1, 266-2, 262, 263, 264번지)에 대해서는 당시 건축물 기록에 관한 등본을 발급 신청하였으나 기록은 없었다.³⁶⁾이에 또 다른 관련 기록이 어느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지 탐색은 다음의 과제로 한다.

4. 보령현의 사직단·여단·역의 위치추정

4-1. 보령사직단 및 보령여단의 위치추정

지방 읍치의 단묘시설은 『국조오례의』³⁷⁾에 명문화된 제도로서 유교적 통치의 일환으로 설치되었다.³⁸⁾ 지방 고을의 단묘는 사직단·여단·문묘 등이며, 도성의 단묘보다 축소된 규모로 정해졌다. 지방의 향교는 교육기관 겸 문묘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제사시설은 지방 고을의 필수시설이었으나, 현재는 보령향교만 보전되고 있고 다른 제사시설은 멸실된 상태이다.

도성의 사직단은 토지의 신인 사단(社壇)은 동쪽에 곡식의 신을 모신 직단(稷壇)은 서쪽에 대청으로 축조했으며, 단의 높이는 3~4척, 너비는 사방 25척으로 석재 신주를 봉안하였다. 도성에는 1395년(태조 4)에 사

를 의미하는 상징적 중심으로 구분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5) 여창환, 2015, 17~25쪽. 지적원도는 조선시대 후기에서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도시형태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 자료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

36) 전산전체채건축물대관리대장과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령시와 국가기록원에 신청하였으나 등계기록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37) 『國朝五禮儀』券1, 吉禮, 壇廟圖說. “社稷社土神稷穀神壇在都城內西 社在東稷在西南壇各方二丈五尺 高三尺…州縣則在城西 社稷共一壇 無石主 以周垣 州縣則 社在壇上近東稷在壇上近西 無配位”

38) ①天→祀: 天神, 바람, 비, 구름 등을 제사하기 위한 장소로 圜丘壇, 風雲雷雨壇, 七星壇 등. ②地→祭: 地神, 산천, 자연의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장소로 社稷壇, 명산대천단, 惡毒毒壇 등.

③人→享: 왕실의 조상, 선현 및 역사적 인물과 일반인의 조상 제사를 지내는 宗廟, 文廟, 家廟, 祠堂 등. // ④大祀: 宗廟, 社稷壇, 圜丘壇. ⑤中祀: 文廟, 先農, 先蠶, 歷代君王, 關王廟. ⑥小祀: 城隍, 厲祭, 司土, 名山大川, 七祀, 地震.

직단을 축조하였고 지방에는 1406년(태종 6) 이후부터 사직단이 건립되었고, 지방의 사직단은 단을 하나만 두어 제례를 간소하게 치르게 하였다. 사직대제는 중요한 대사로 2월과 8월, 동지, 제석에 왕이 친히 제사를 지냈는데, 보령 사직단과 보령여단의 소재에 관해 전해지는 기록은 매우 소략하다.(표 4)

표 4. 사직단과 여단의 위치 기록

자료	사직단	여단
신증동국여지승람	사직단은 현의 서쪽에 있다(社稷壇在縣西)	여단은 현의 북쪽에 있다(厲壇在縣北)
여지도서	사직단은 현의 서쪽 3리에 있다(社稷壇在縣西三里)	여단은 현의 북쪽 2리에 있다(厲壇在縣北二里)
보령군지	봉당리 사청이 마을터	마강리 빗장수마을 길 옆(지금은 묘)

따라서 보령현의 단지(壇址)는 <표 4>에서 제시하는 단서를 가지고 추적하였다. 일단『보령군지』에 기록된 동리(洞里)를 추적하여, 해당 「지적원도」에서 국유지를 우선적으로 검색하여 취합한 후에 지목, 면적, 진입로 등의 제반 조건을 분석한다. 이처럼 분석된 후보지를 5,000분의 1 수치지도에 표정하여 주변 환경에 부합되는지 타당성을 따져 유력지를 식별하고, 그다음에 현지답사를 통해서 단의 위치로서 적합성을 검토하여 지번을 추정하기로 하였다.

<표 4>의 기록에 따라 주포면 봉당리의 사청(射廳)부락의 동북부에 있는 ‘등안’ 마을을 주목하였다. 사직단은 국가의 제례시설로서 국유지라는 것에 착안하여 지적원도(보령군 주포면 봉덕리 원도 20-5)에서 국유지로 표시된 지목이 임(林)인 142, 145, 154, 165번지를 유력지로 식별하였다.(그림 11) 보령군 지역 지적원도의 ‘건제목’에는 작성 당시에 소유자가 기재된 것이 특징이다.³⁹⁾

먼저 면적 분석에서 142, 145, 165번지는 면적이 각각 3,241㎡, 2,714㎡, 2,664㎡로 사직단이 될 만한 면적에 미치지 못하였고, 154번지는 5,822㎡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었다. 154번지는 동서 90m에 남북 65m 정도의 방형에 가까운 형상으로서 『국조오례의』에서 정한 “제 단묘는 단에서 30보 이내에 경작과 땔나무를 하는 것 및 사람의 통행금지” 조항을 거의 충족시키면서,⁴⁰⁾ 부족한 부분은 142번지가 인접되어 있어서 보완적이고 사직단의 부속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쪽과 북쪽으로 출입로가 있는 등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반면에 145번지는 우선 면적이 좁고 동쪽 면은 큰 길에 인접되고 있어서 『국조오례의』에서 정한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위치로 판단되었다. 또, 165번지 역시 면적으로도 부족하지만 토지 형상이 길고 폭이 좁으며, 남쪽에 인접한 경작지보다 표고가 5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의 장소로서 적당한 곳으로 볼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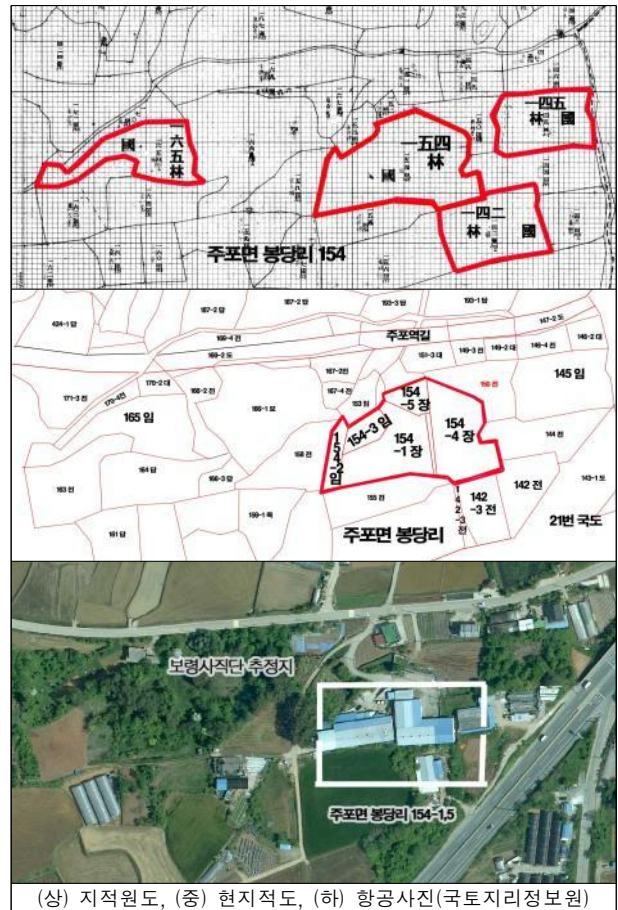


그림 11. 사직단 위치 추정 지적도 및 항공사진

여단(厲壇)은 도성의 영성단⁴¹⁾을 본받은 것으로 매년 봄 청명일과 가을(7.15)과 겨울(10.1)에 제사를 받지 못하는 귀신 등에게 제사를 지냈다.⁴²⁾ 여단은 1400년(정종2)에 설치되기 시작하였다.⁴³⁾ 여단은 정사각형이며 한 변의 길이가 2장 1척, 높이는 2척 5촌이며, 사방

41) 靈星壇은 새해 농사가 잘되도록 곡식을 맡은 별과 농사를 맡은 별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든 제단으로 우사(霽祀: 기우제) 등을 지내는 단과 함께 도성의 남쪽교외에 있었다.

42) 『태종실록』제7권, 태종4(1404). 6.9. 京中及外方各官 每歲春清明日 秋七月十五日 冬十月初一日 祭無祀鬼神 其壇設於城北郊間.

43) 한국건축역사학회, 2009, 272쪽. 세종대에 지방도시... 성황단과 문묘를 설치하고 객사와 동헌 등의 시설이 설치되면서 조선시대의 통치 특징이 읍에 반영된다.

39) <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 건제목: 충청남도 보령군 주포면 봉덕리 005-154, 소유자: 국유지, 지목: 林, 생산년도: 1914.

40) 諸壇廟 壇外三十步內 禁斷 樵木耕種 及 行人

에 층계로 담을 쌓아 단을 보호하였고, 여단에는 여귀의 신좌를 배열했다. 보령여단의 소재 위치는 <표 4>의 기록과 『보령시지』에서 “여단산은 강술 새뜸마을과 맞강술 사이에 있는 산은, (...) 옛 보령현의 여단이 있던 곳이라 진한다. 여단이 있던 산40-2번지는 595㎡로 국유지였으나 21호 국도확장으로 도로가 되었다”라는 기록을 주목하였다. 『보령군지』는 “묘가 되었다”고 하였고, 『보령시지』는 “도로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림 12. 보령여단의 소재위치 추정 지적도

그러나 필자가 답사한 결과 현재 해당 지번은 산림으로써 존재하였고 산림청 소유였다. 여단지는 참나무 숲이 우거진 상태로 지표에 나타나는 유구는 없었다.

보령여단의 중심지는 보령군 주포면 마강리 산 40-2번지이다. 여단 부속지는 산 40번지였으나 <그림 12>의 지적도에 표시된 것처럼 국도 21번 도로 확장공사로 여러 차례 분필되었고, 최근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관 매설지(147-4번지, 水)로 분할되었다. 이에 따라 여단지는 서쪽 경계면이 절토(切土)된 상태로 외견상 형세는 도로면보다 10여 m 이상 우뚝 솟아 있어 옛날에 여단산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산으로 보인다.



그림 13. 여단산(항공지도, 국토지리정보원)

4-2. 청연역의 위치추정과 보령향교 및 읍치시설의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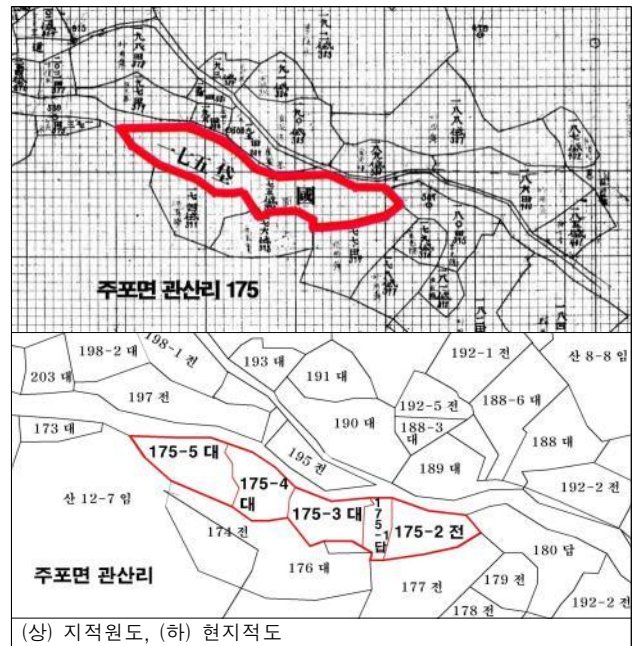


그림 14. 청연역 소재위치 지적도

청연역(靑淵驛)은 금정도 소속으로 보령읍성의 남쪽 6리 지점에 소재하였다. 위치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봉수가 임진왜란 때나 왜군의 재침 상황에서 작동되지 않은 사실과 명군의 과발제(擺撥制)⁴⁴⁾가 효율적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과발제가 채택되었다.⁴⁵⁾ 이에 따라 보령현의 조침산 봉수도 17세기에는 폐지⁴⁶⁾되었을 것으로 본다. 과발은 보발과 기발로 국가의 전명(傳命)을 담당하였다. 마필은 상등마 2필, 중등마 6필, 하등마 7필이고 역원은 역리 74명, 역노 102명, 역비 12명이 배치되었다.⁴⁷⁾ 청연역이 소재한 곳은 관산리(館山里) ‘역말’로 역이었음을 내포하고 있다.⁴⁸⁾ 따라서 청연역 터를 찾기 위해 보령 사직단을 추적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먼저 지적원도를 탐색하였다.

역말부락에 해당되는 지적원도(주포면 관산리 15-1, 15-2, 15-3)에서 국유지를 추출하였다. 여기에서 국유지 5필지가 확인되었는데 대지는 175번지⁴⁹⁾ 하나였고,

44) 김문자, 2005, 1~45쪽. 1597년(선조 30) 騎撥은 매 20리에 1站, 보발은 매30리에 1站의 과발을 설치하여 문서를 전하였다.

45) 임만택, 2004, 59~66쪽. 과발제에서 소요일수는 남발(동래)에서 기발 1-2일, 보발 2-3일. 서발(의주) 기발 2일 보발 2-3일이었다.

46) 김주홍, 2004, 99~111쪽. 봉수는 16세기 후반에 접어들면 거의 毀損되었다.

47) 『여지도서』

48) 필자가 조사한 결과 이 마을에는 70대 이상 주민들조차 ‘청연역’이 무엇인지, 소재했던 위치가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하였다.

나머지 4필지는 지목이 전(田)과 답(畓)으로 청연역의 관둔전(官屯田)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대지로 식별되는 175번지는 그 면적이 1,723㎡로 인근에서 대지로서는 가장 큰 면적이기 때문에 역의 입지로서 결함이 없는 적합지로 선정될 수 있었다. 또 대천대로(大川大路)⁵⁰ 변에 인접하고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청연역지는 <그림 14>에 표시된 지적원도상의 관산리 175번지로 추정하였다.⁵¹ 역에는 건축물이 여러 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 기록을 추적하였지만 확인은 불가하였다.⁵²

청연역은 보령현에 속한 기관은 아니지만 보령현의 공간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살펴본 것이며, 보령향교는 보령현의 단묘 시설 중에서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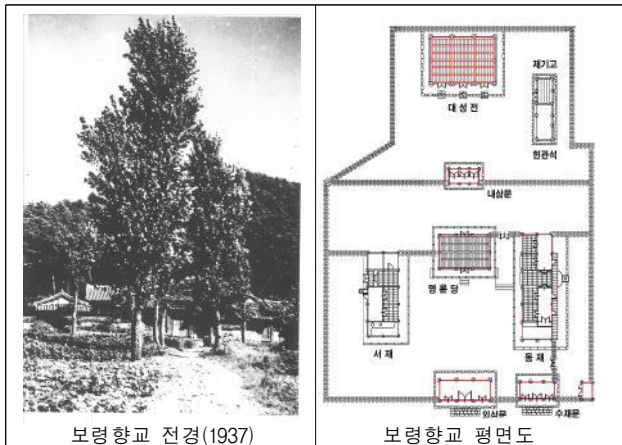


그림 15. 보령향교 전경과 평면도

보령향교는 충남도기념물 112호로 주포면 보령리 47-1번지(읍성의 동남쪽 향교말 부락)에 소재하며, 태종대에 건립되었고 현존 건물은 고종 5년(1868)에 중수된 것이다(『보령시지』, 2012). 배치형식은 명륜당이 앞에 있고 후면에 대성전이 있는 전학후묘(前學後廟)식이다. 대성전은 정면 3칸에 측면 2칸의 겹처마 맞배

지붕이고, 명륜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홑처마 맞배 지붕이다.⁵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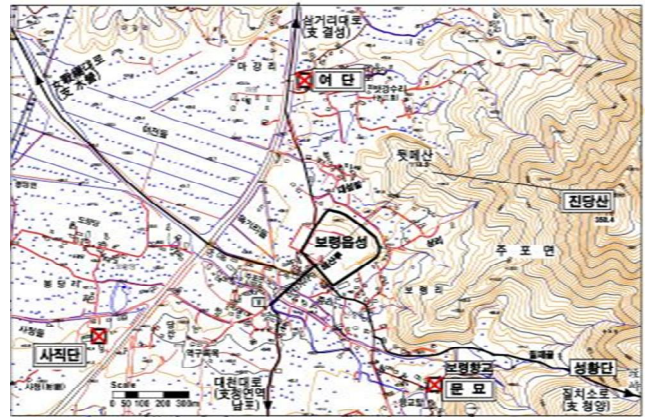


그림 16. 보령현의 읍치시설 배치도(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도, 366111 & 366112)

위에서 위치가 추정된 읍성·진산·단묘 등의 위치를 수치지도에 표시하면 <그림 16>과 같은 보령현의 읍치시설 배치 상태가 표현되고 보령현 읍치의 공간구성이 드러나게 된다. 이 배치도에서 사직단과 문묘의 배치는 보령읍성을 기준으로 좌묘우사(左廟右社) 배치가 뚜렷하다. 즉 사직단은 우측에 문묘는 좌측에 배치된 것으로 도성의 예를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읍성의 북쪽에 여단이 설치되었고 성황단이 동쪽에 배치된 것도 대부분 읍치의 일반적 관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진산의 방향은 현의 동쪽에 위치한 진당산으로 북향 원칙에는 벗어난 형국이다. 도로망으로 살펴보면 북쪽으로 삼거리대교가 수영대로에 연결되고, 서쪽의 충청수영까지는 여전교대로, 남쪽으로는 대천대로, 동쪽으로는 질치소로를 통해서 사방으로 연결되고 있다.

5. 결 론

본고는 보령현 읍치의 주요 관아건축물과 단묘(壇廟)의 위치를 추정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읍치에서 필수 시설물인 동헌·객사 건축물과 사직단·여단 등 제사시설의 지번이 확인된 것이다.

첫째, 보령읍성은 지방읍치에서도 도성의 조성원리에 따라 권위표현을 구현하는데 풍수이론이 적용되는 시기인 1430년(세종 12)에 낙성되었는데, 금북정맥의 백월산은 보령현의 조종산이고, 오서산은 조산이며, 진

49) <국가기록원 지적아카이브> 건제목: 충청남도 보령군 주포면 관산리 006-175, 소유자: 국유지, 지목: 塿, 생산년도: 1914.

50) 『여지도서』에 기재된 大川大路는 읍성에서 藍浦界까지 20리.

51) 현재 청연역지는 <그림 14>에 표시된 바와 같이 5필지로 분할되어 있다. 대지 3필지 1,184㎡에 주택 3채가 있고, 나머지 2필지는 田과 畓으로 539㎡이다.

52) 보령시와 국가기록원에 진산전폐쇄건축물대관리대장과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신청하였으나 건물이 등재된 기록은 없었다.

53) 전국적으로 향교가 존속되고 있는 것은 日帝가 ‘향교재산관리규정’을 정하고 ‘직원의 임면권’을 유림으로부터 박탈한 영향이 크다.

54) 『國朝五禮儀』序例 券1, 吉禮, 壇廟圖說: 州縣大成殿三間 在北南向 庭東西有廡 縣則無廡

당산은 진산으로서 보령읍성을 진호한다는 논리의 표현이었다. 또한 보령읍성 낙성 이전에 진당산성이나 봉당성이 보령현의 읍치였다는 산성읍치설에 입각한 기존의 주장도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둘째, 보령읍성에 있던 관아 건축물은 모두 철해되고 그 터에는 보령중학교와 주포초등학교가 건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객사 영역은 지적원도상의 보령리 264번지이고, 동헌 영역은 266-1번지에 소재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셋째, 보령현의 사직단과 여단의 소재 위치를 추적하였다. 보령 사직단은 봉당리 154번지로 추정되었고, 보령 여단은 마강리 산 40-2번지에 소재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보령현 관산리 역말에 소재하던 청연역의 위치는 관산리 175번지로 추정하였다.

넷째, 보령현 객사 신성관(新城館)은 일반형객사 형식의 건물로서 중앙의 전대청이 4칸이고 양쪽에 동헌과 서헌이 각각 3칸으로 전면 10칸에 측면이 2칸 이상으로써 건축면적이 72평이나 되는 위용을 갖추고 있었다. 인근에서 원형이 잘 보존된 홍산현 객사 비홍관의 건축면적 37평과 비교해 볼 때 그 규모가 실감되고, 이와 같은 신성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향후 보령현 읍치시설의 위치확인이나 복원 작업에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신증동국여지승람』
2. 『여지도서』
3. 『호서읍지』 『보령현읍지』
4. 『보령군지』1991
5. 『보령시지』2012
6.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2013
7. 이기봉, 『고지도를 통해 본 충청지명 연구(1)』, 국립중앙도서관, 2012
8. 한국건축역사학회, 『한국건축답사수첩』, 동녘, 2009
9. 권선정, 「조선시대 읍치의 진산과 주산: 대전·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역사』, 22(2), 2010
10. 권선정, 「조선후기 고지도를 통해 본 전통도시 읍치의 공간구성」, 『문화역사지리』, 32(2), 2020
11. 김기덕, 「조선후기 충청도 전의현 관아건축의 배치구

- 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0(4), 2001
12. 김문자, 「정보·통신과 임진왜란」, 『한일관계사연구』, 22, 2005
13. 김주홍, 「한국 연변봉수의 형식분류고 (I)」, 『역사와 실학』, 27, 2004
14. 여창환, 「역사공간 재생을 위한 지적원도의 유용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지』, 31(1), 2015
15. 예명해, 「조선시대 지방도시의 공간구성원리에 관한 연구(1)」, 『국토계획』, 33(6), 1998
16. 이기봉, 「조선시대 경상도 읍치 입지의 다양성과 전형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3), 2007
17. 이기봉 외 1명, 「낙안읍성의 입지와 구조 그리고 경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4(1), 2008
18. 임만택, 「조선시대의 역 시스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6(2), 2004
19. 정요근, 「고려시대 전통 대읍 읍치 공간의 실증적 검토와 산성읍치설 비판」, 『한국중세고고학』, 6, 2019
20. (web)고전종합DB, 『태종실록』; 『국조오례의』
21. (web)국가기록원, 「지적원도」; 「各道客舍數調」
22. (web)국립중앙도서관, 『1911, 조선지리지』
23. (web)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 보령지역 수치지도
24. (web)규장각한국학연구원, 「1872년 지방지도」의 고지도류

접수(2022. 06. 22)
 수정(1차: 2022. 07. 28)
 게재확정(2022. 08. 03)